

일본경제리뷰 No.18_10

< Special Issue >

자동차산업의 변화와 이업종간 제휴경쟁

Contents

<Special Issue>	1
I. 한일경제동향	5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	9
2. 경제정책	12
3. 기업전략	15
III. KJCF&KJE News	19
IV. 이달의 추천자료	22
V. 한일경제지표	23



〈 Special Issue 〉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이업종간 제휴경쟁

- 자동차메이커가 산업의 주역을 담당해왔던 시대가 끝나고, 업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제휴로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음
- 자동차의 이용방법이 소유에서 공유로 이동하는 등 자동차산업은 100년에 한번의 변혁기를 맞고 있음
- 이에 일본의 라이벌 자동차메이커들도 진영구축에 매진하고 있음
- 9월 3일에는 GM과 혼다가 라이드셰어 등 자동운전기술에서 제휴하기로 발표하는 한편, 9월 4일에는 도요타와 소프트뱅크가 이동데이터 분야에서 제휴를 하는 등 라이벌 각사들 간의 진영구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
□ 자동운전분야에서 혼다자동차와 GM의 제휴

- 일본 혼다자동차와 미국 GM이 9월 3일 자동운전기술 분야에서 제휴하기로 발표함
- 혼다는 자동운전 분야의 GM 자회사에 7억 5,000만 달러를 출자하고, 사업자금의 제공도 포함하여 3,000억 엔 규모를 투입하여 차세대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임
- 자동운전 분야에서는 대형 IT업체 등을 포함하여 업종을 뛰어넘는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- 규모를 추구해온 자동차업계의 재편은 데이터의 수집이나 활용을 축으로 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
- 혼다가 출자한 곳은 GM그룹홀딩스
- GM이 2016년에 약 10억 달러로 매수한 기업이 모체로서, 2018년 소프트뱅크 그룹이 자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통하여 약 20%를 출자하고 있음
- 혼다의 출자비율은 5.7%로 GM, 소프트뱅크에 이어 3위의 주주가 됨
- 혼다는 앞으로 12년 동안 20억 달러의 자금도 제공하여 무인택시의 전용차량을 GM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무인택시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세계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있음

- GM 측은 우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택시의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실용화에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, 실용화되면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함

□ 이번 제휴를 통해서 혼다와 GM의 포괄적 제휴 완성

- 혼다와 GM은 2013년에 우선 연료전지차(FCV)에서 제휴했음
 - 핵심부품의 미국에서의 공동생산과 함께, 전기자동차(EV)개발에서도 2018년 6월에 고효율의 신형전지를 공동개발하기로 발표했음
- 이번 자동운전이 추가됨으로써 차세대자동차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휴하게 됨
- 자동운전의 기술개발은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등 대형 IT업체가 주도해왔음
- 한편 대형 자동차 업체는 운전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
 - 혼다와 GM을 합친 2017년의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는 1,400만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제휴에는 자동차메이커 주도의 개발을 노리는 면도 있음
- 차세대 자동차에서는 CASE(커넥티드, 자동운전, 셰어링, 전동화)로 불리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기술개발이 경쟁력을 나누는데, 특히 자동운전은 보행자 주위의 인식과 복잡한 주행의 제어기술이 필요하여 개발비 부담이 매우 큼
- 미국 보스턴·콘설팅 그룹은 무인택시 개발에 2035년까지 1.8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
- GM은 세계 자동차업계에서는 선행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 완전자동운전이 실현하는 Level. 4의 양산차를 처음으로 실용화할 방침임

□ 자동운전 분야에서 혼다는 열세

- 혼다가 열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며 자동운전기술은 그룹계열 웨이모와 공동개발해 왔으나 이제까지의 성과는 적은 편임

- 도요타자동차와 미국 포드·모터도 외부제휴를 통하여 자동운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
- 그러나 혼다와 GM과 같이 자동차업체끼리(포괄적인)제휴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임

□ 이동데이터 활용분야에서 도요타자동차와 소프트뱅크의 제휴

- 한편, 도요타 자동차와 소프트뱅크는 9월 4일 자동운전 등 차세대자동차의 사업전개 분야에서 제휴하기로 발표함
- 자동차의 개발과 안전기술 분야에서 세계 톱 수준의 도요타와 각국에서 세어사업자에게 출자하는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차세대 분야에서 주도권을 노리고 있음
- 인공지능(AI) 등 기술진전을 배경으로,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시대임
- 미국의 구글 등 이업종이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는 자동차산업에서도 데이터를 둘러싼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

□ 도요타도 소프트뱅크와 공동으로 이동서비스 관련 업체 설립

- 도요타와 소프트뱅크는 공동으로 이동서비스사에 관여하는 「모네·테크놀로지」를 설립함
- 소프트뱅크가 50.25%, 도요타가 49.75%를 출자, 2018년도 중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며 자본금은 20억 엔으로 장래 100억 엔까지 늘릴 계획임
- 도요타와 소프트뱅크는 시가총액 일본 내에서 1위와 2위로, 이동수단을 서비스로 하여 사용하는 모빌리티·어즈·아·서비스(MaaS)로 불리는 차세대분야에서 제휴하게 됨
- 신설 회사는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과소지역 등 일본 전국 100개소에서 기존 자동차를 사용한 배차서비스를 시작하게 됨
- 2020년대 중반까지 도요타가 개발하는 완전자동운전차 「이·파레트」의 보급도 추진함
- 상품을 가정에까지 배달해주는 이동형 무인편의점이나 환자를 진찰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자동운전차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임

□ 소프트뱅크, 세계 자동차 셰어서비스의 90% 장악

- 소프트뱅크는 미국 유버테크놀로지와 중국의 디디추싱(滴滴出行) 등 라이드셰어 4대 업체의 필두주주로 승차회수로 본 세계셰어는 90%임
 - 이러한 셰어서비스 대형업체에 대하여, 도요타가 개발한 자동운전차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있음
- 자동운전을 둘러싸고는 미국 인터넷업체가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
 - 구글계의 웨이모는 2009년부터 자사가 개발한 자동운전차에서公道주행 테스트를 개시, 이미 총주행거리가 약 1,400만km를 넘어 2018년 중에 상용화할 예정으로 사업속도가 빨라 2020년대 중반까지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도요타를 앞지름

□ 자동운전 관련 데이터 집적정도가 경쟁력을 좌우

- 도요타는 자동차의 개발·안전기술에 대한 강점외에, 세계에서 약 1,000만 대를 판매하는 고객기반에서 얻어지는 주행데이터도 많음
 - 그러나 단독 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며, 자동운전에 필요한 통신용 반도체설계에 강한 영국 암·홀딩을 산하에 둔 소프트뱅크와 제휴하여 반격을 꾀하고 있음
- 자동차는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창출함
 - 예를 들면, 중국의 滴滴은 연간 100억 명의 이용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차를 타고, 얼마나 지불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
 - 데이터를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하면 15분 후에 100미터 사방에서 몇 대의 차가 부족한지, 승객이 손을 들기 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소프트뱅크의 손 사장은 말하고 있음
- 앞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집적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경쟁을 좌우함

I. 한일 경제 동향

□ 무역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- 따라서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4.7%, 수입의 대일의존도는 11.5%
 - 한편, 2017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.2%
- ' 18.9월 對日 무역적자는 1,722백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축소
- 對日 수출은 2,458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2.5% 감소
 - 10대 對日 수출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광물성연료의 對日 수출 증가폭이 24.8%로 가장 큼
 - 對日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이 -16.8%로 감소폭이 가장 큼(한일경제지표 1 참조)
- 對日 수입은 4,180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.3% 감소
 - 10대 對日 수입 품목 중 정밀기계의 對日 수입 증가폭 20.9%로 가장 큰 반면, 對日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철강제품이 -9.1%로 감소폭이 가장 큼

< 2018년 9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>

	2018.8월			2018.9월			2018.1-9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 수출	2,421	14.9	-4.7	2,458	-2.3	1.5	22,630	13.2
對日 수입	4,233	-6.7	-7.6	4,180	-15.1	-1.3	41,031	0.0
무역수지	-1,812	-25.4	-10.1	-1,722	-28.5	-5.0	-18,401	-12.5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' 18.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, 크게 감소
 - ' 18.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96백만 달러로 전기대비 81.0% 감소
- 한편 ' 18. 8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297억 엔으로 전기대비 5.7% 감소
 - ' 18. 8월 對韓직접투자는 일본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.9%

< 일본인 직접투자 추이 >

	2017	2018 2분기	2018 3분기	2018.7월	2018.8월
일본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1,862 (90.1)	504 (37.0)	96 (-81.0)	-	-
전체 외국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22,970 (7.8)	10,820 (119.3)	3,449 (-68.1)	-	-
일본의 對韓직접투자(억 엔, %)	4,112 (18.8)	1,038 (4.5)	-	315(-4.3)	297(-5.7)
일본의 해외직접투자(억 엔, %)	559,108 (-18.0)	145,925 (-29.3)	-	44,329 (-21.5)	32,698 (-26.2)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,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- IoT(사물인터넷) 디바이스 플랫폼 전문기업인 엘토브가 일본법인 글로스퍼채팬과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Lif주식회사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(2018.10.18. 머니에스)
 -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회사 측은 이번투자가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
- 전라북도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일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(2018.9.27.매일일보)
 - 10월 9~12일까지(4일간) 일본 도쿄에 있는 화학기업 및 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펼침
 - 이번 일본 투자유치 활동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지자체 투자유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일본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임대용지 확보와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집중 홍보함
 - 코트라 도쿄무역관이 사전 협의한 타깃기업과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, 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면담 방식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

□ 인적교류

- ‘18. 9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21.3% 감소
 - 9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47,847명으로 8월보다 21.3% 감소
 -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음
- ‘18. 9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, 19.3% 감소
 - 9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479,700명으로 8월보다 19.3% 감소
 - 태풍과 홋카이도 지진의 영향이 컸음

□ 기타 한일경제 관계 관련 언론기사, 보도자료 등

- 한일은 역사의 골을 메꾸는 중층적인 관계를(일본경제신문 사설, 2018.10.8.)
 -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의 발전노력을 강조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 후 20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 상대의 존재를 다시 잘 보는 기회로 삼고 싶음
 - 동 선언은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처음으로 공식 명문화한 것으로 한국도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했음
 -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한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에 따라 민간교류가 본격화 되었음
 - * 그 후 20년간 왕래한 관광객 수는 3배 이상 확대, 평균 매일 25,000명 이상이 양국을 왕래했으며 2018년에는 왕래 관광객 수가 1,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
 - 일본 비영리단체 언론 NPO가 2018년 6월에 발표한 양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, 한국인으로 방일경험이 있는 층은 경험이 없는 층에 비하여,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3배에 달함
 - *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에 대한 좋은 인상이 증가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점이며 직접 국민성이나 문화에 접하여, 상호이해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임

- 최근 한국이 국제관람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인 욱일기의 게양을 자숙하도록 요구, 일본은 참가를 보류기로 결정했음
 - * 한국에서는 구 일본군이 사용한 욱일기를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음
- 역사의 골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 공통의 이익을 넓혀야 함
- 실업율이 높은 한국 젊은이들의 일본에서의 취업지원은 그 중 하나로 일본 외무성이 만든 유식자회의는 한일의 프로야구단에 의한 아시아리그 창설이나, 영화·드라마의 한일합작 등을 제언했음
- 국가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층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- 북미 교섭이 진전되면 비핵화 프로세스나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 간 제휴가 필수적으로 보호무역으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의 대두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협력 가능한 여지는 많음
- 「양국 국민의 폭 넓은 참가와 부단한 노력에 의해, 가일층 고차원의 것으로 발전시킨다」, 20년 전의 선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양 국민에게 공동 작업을 호소했음
- 역사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, 신뢰관계의 꾸준한 구축이 필요함

II. 이달의 일본경제

1. 경기·무역 동향

□ 경기 완만한 회복세

-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
 - 수출과 생산 활동은 호우의 영향도 있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
 - 앞으로 일본경제는 재해의 영향이 일순하는 가운데,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수출과 설비투자를 기점으로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
- 8월의 경기동향지수는 전월대비 1.4포인트 상승한 117.5로 4개월 만에 상승세 반전
 - 자동차와 반도체제조장치의 출하 개선이 지수 상승에 기여
 -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23개월 연속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조 판단을 유지
 - 수개월 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0.5% 상승하여 앞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
- 8월의 실질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2.8% 증가
 - 자동차구입비가 증가한 외에 교육비 지출과 보너스 증가가 소비를 부추김
-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7월 기계수주액은 화학공업 및 섬유공업의 투자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6.8% 증가
 - 「일본은행단관(短観)」(2018년 9월)등에 의하면, 엔저와 일손부족 등을 배경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의 의욕이 살아나고 있어, 대기업제조업의 경우 2018년도 성력화 투자와 생산증강투자를 중심으로 17.5% 늘릴 계획임
- 8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.2% 증가, 전년대비로도 0.2% 증가
 - 자동차, 공작기계 등의 생산이 증가

- 8월의 완전실업율은 전월보다 0.1%포인트 낮은 2.4%
 -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여성근로자와 고령자의 노동참가율 상승이 주된 원인
 -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같은 1.63배로 197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
 - 구인은 증가한 반면, 견조한 고용환경 때문에 구직자는 감소한 가운데 특히, 운수업과 우편업에서 신규 구인수가 8.0% 증가
- 9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대비 1.1% 증가
 - 미국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대비 4.1% 증가로 호조
 - 앞으로도 해외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이 지속될 전망
- 9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과 같은 전년동월대비 1.0% 상승
 - 전기료와 휘발유가격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전월비로는 0.0% 상승
 -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작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 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
□ 무역수지 흑자 반전

- 9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전월의 4,446억 엔 적자에서 1,396억 엔 흑자로 반전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1,810억 엔 적자에서 3,702억 엔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4,558억 엔에서 5,903억 엔으로 증가
 -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짐
- 9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0.5% 증가한 6조 7,266억 엔
 -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자동차 수출 증가폭이 전월대비 10.0%로 가장 큰 반면,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-11.9%로 가장 큼(지표 4)

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출은,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3.9%로 가장 큰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-7.6%로 가장 큼(지표 5)
-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비 2.7% 증가
- 9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7.6% 감소한 6조 5,871억 엔
 - 5대 수입 품목 중,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입증가폭이 2.2%로 가장 큰 한편, 원유의 수입 감소폭이 -19.5%로 가장 큼(지표 6)
 - 주요 지역별로는 한국을 제외한 모두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,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전월대비 -12.8%로 가장 크게 감소
 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2.9% 증가(지표 7)

〈 2018년 9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〉

	2018.8월			2018.9월			2018.1-9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수 출	6.7	6.6	-0.2	6.7	-1.2	0.5	60.2	4.9
수 입	7.1	15.4	1.4	6.6	7.0	-7.6	60.2	9.1
수 지	-0.4	-	100.0	0.1	-78.7	-	0.0	-

자료 : 재무성

- 9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11.9엔으로 전월대비 0.7% 엔저
 - 10월 들어 최근에도 112엔대까지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데, 이는 미중무역마찰에 대한 경제감이 악화되고 있는데 더하여 `미국의 장기금리상승에 따른 미일간 금리차 확대로 엔매도·달러매입이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임
 - 對원화 환율은 100엔당 1,003엔으로 0.7% 원고(엔저)
- 8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26.2% 감소한 3조 2,698억 엔
 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5.7% 감소한 297억 엔
- 8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10.0% 감소한 1조 8,384억 엔
 - 유가상승으로 무역수지(국제수지 기준)가 적자를 보인데다, 태풍과 자연재해로 여행수지가 둔화되는데 기인함

2. 경제정책

□ 엔저의 지속성에 한계

- 최근 엔저 진행이 일본의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미국 FRB의 금리인상이 당분간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매입으로 이어지고 있음
- 그러나 FRB는 금리인상을 2020년에 중지하는 것도 시사하고 있음
 - 본래 환율은 어느 정도 앞의 금융정책에 관한 예상으로 움직이기 쉬어 엔저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유력함
-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근거는 9월 26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가 발표한 정책금리 전망임
 - 금리인상 횟수는 2019년 3회, 2020년에도 1회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임
- 미국이 금리인상을 계속하면, 시장은 일단 반응을 보이는데, 2017년 11월말 엔화는 달러당 114엔대로 하락함
 - 그러나 FOMC의 전망을 잘 보면 금리인상은 그렇게 오래 계속될 것 같지는 않음
 - 즉 2020년의 금리인상은 1회뿐으로 이번에 새로이 제시한 2021년의 금리인상 횟수는 제로임
 - 따라서 금리인상이 2020년 1-3월기에 끝날 것이라는 상정이 가능함
- 시장의 일부에서는 FOMC의 전망으로부터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음
 - 감세효과 등에 힘입어 현재 미국경제는 힘차게 회복하고 있어 임금상승도 가속될 것이라는 분석임
- 그러나 감세효과는 언젠가는 약해지고, 오히려 이러한 낙관론을 배경으로 과도한 장기금리상승이 발생하면 경제는 냉각되어버려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
 - 결과적으로 FRB의 금리인상 철회가 빨라질 수도 있음
- 본래 환율은 어느 정도 앞의 금융정책에 관한 예상을 반영하여 움직이기 쉬움
 - 그 후 1년반 정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, 엔저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도 설득력이 있음

- 실제로 일찍부터 달러매도를 늘려온 투자가도 있음
 - 외국환증거금거래(FX)에 관여하는 일본의 개인투자자들이며 FX회사 4개사의 데이터를 집계하면, 9월 26일과 10월 3일에 2주에 걸쳐 달러를 매입함
- 여타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엔저진행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큼
 -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엔화가치가 하락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미쓰비시 UFJ 모르간 스탠리증권 관계자도 2019년 중에는 미국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여하에 따라 엔저의 흐름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함
- 사카키바라(榊原英資) 전 재무관은 엔고로 반전하는 시기는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9년에는 110엔을 돌파하는 엔고가 될 것이라는 판단임
 - 또 미국의 금리인상 국면이 끝날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과,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등의 재료를 배경으로 2019년 봄에 걸쳐 엔화는 100엔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

□ 일본·미국·유럽 데이터 무역권 구축

- 일본정부가 미국 및 EU와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관련 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인공지능(AI)등에 안전하게 이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임
 - 금년에는 EU의 정보보호규제나 페이스북의 정보유출 면에서 미국의 대형 IT업체들의 전략에 균열이 발생함
 - 대두되고 있는 중국과의 데이터무역권 경쟁을 의식하여 일본·유럽·미국 간 제휴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일본정부의 목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이버시큐리티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·지역, 기업에 대한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는 합의임
 - 국경을 넘는 이전에는 엄격히 본인의 양해를 구하여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음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·미국·유럽의 통상장관무역상회의에서,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되는 2019년 6월 20일 G20정상회의까지 합의하여 발표할 방침임

- 이제까지 세계 데이터는 GAFA(구글, 애플, 페이스북, 아마존닷컴)로 불리는 미국 거대기업들이 압도해왔음
 - 그러나 EU가 2018년 5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일반데이터 보호규칙(GDPR)을 시행하여 EU 역외로의 개인데이터 이전을 원칙 금지했기 때문에 GAFA도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음
-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미국연방거래위원회, 유럽위원회사법총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완성하여 각국이 법정비를 추진키로 하는데,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함
- 2018년에는 데이터 유출사건이 잇따라 미국 내에서도 GAFA에 대한 규제론이 시작됨
 - GDPR과 데이터 유출로 GAFA가 흔들리는 틈에 일본은 구미의 교량역할을 하여 룰 제정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임
- 일본정부 관계자는 미국정부가 유럽의 GDPR에 준거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며, 미국이 유럽의 기준에 접근할 것인가가 초점임
- 중국의 관리사회형 데이터 유통에 대한 경계도 있음
 - 중국은 BAT(바이두, 알리바바, 텐센트)로 불리는 기업을 전면에 세우고 국가가 정보를 취급, 개인의 특정된 대량의 데이터가 모아짐
 - 질도 양도 높은 수준인 데이터를 사용하면 AI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짐
 - 이미 동남아시아나 중동, 아프리카에 판매를 시작하고 있어 중국모델의 데이터권이 확대될지 모름
- 일본·미국·유럽은 중국에 비하면 인권에 배려하여 어느 정도 익명화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AI의 능력 면에서 질 가능성도 있음
- 이에 국가주도·관리의 무역권이 패권을 쥐기 전에 투명성 높고 인권을 배려한 무역권을 만들면, 역내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
-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에서는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일본에도 기회가 있다고 함
 -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는 산업데이터도 안전하게 유통시키는 룰을 제정하여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임

3. 기업전략

□ 외국인의 방일소비, 수출확대와 생산증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


- 최근 일본에서는 방일객에 의한 왕성한 소비가 소비재의 수출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확대되고 있음
 - 식품이나 일용품의 맛이나 품질의 우수함을 실감한 방일객들이 현지에서 반복 구매하는 귀국 후 소비가 견인하고 있는 것임
 - 과자류와 화장품에서는 수출확대가 일본 국내 설비투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
- 일본 마쿠하리멧세에서 10월 10일부터 개최된 「일본식품 수출EXPO」에, 건강지향이나 다양한 맛을 세계에 알리려고 참가했던 식품업체가 600개사로 작년의 2배임
 - 80개국의 해외바이어 4,000명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음. 그 중에서도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이 초콜릿 과자류와 쿠키 등 다양한 과자류임
- 일본의 과자제조업체 가루비(Calbee)는 스낵과자 「자가비」와 「자가포클」의 대중국 수출을 2017년에 시작함
 - 자가포클은 연간 약 40억 엔 매출의 절반이 방일객에 의한 구매로 이러한 인기의 연장선상에서 수출확대를 노리고 있음
 - 자가비 등은 동사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스낵과자류에 비하여 단가가 2~4배로 비싼 편임
 - 세계 대기업들과 현지 메이커와의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, 일본제를 무기로 고부가가치대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
- 아타리마에다의 크래커로 알려진 마에다제과와 스즈키에이코도(鈴木栄光堂) 등 중견 과자메이커도 전시회에 출품, 해외 바이어에 판매하고 있음
 - 스즈키에이코도는 약 80억엔의 매출액 중 수출이 25억엔 정도로 확대됐으며, 쿠키에 초콜릿을 입힌 과자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함

-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증가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음
 - 가루비는 자가비 등에 선행하여 중국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과일이 포함된 시리얼 「후루그라」의 생산능력을 40% 높이기 위해, 2018년까지 약 70억 엔을 투입하여 교토 공장에서 새로운 생산라인을 가동시켰음
 - 2020년 이후 후루그라의 수출을 2017년 실적의 7배인 160억 엔으로 늘릴 계획이며 동사 CEO는 방일객에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는 앞으로 글로벌 전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
- 녹차맛 「킷캣(KitKat)」 등의 對한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네슬레일본도 2017년 가을에 26년만의 국내 신 공장을 효고현에 설립했음
 - 킷캣은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일본제 킷캣은 맛이나 제품의 다양함이 인정되어 수출로 이어진 특별한 사례라고 함
- 일본관광청에 의하면 2017년 방일객에 의해 과자구입액은 2016년 대비 21.5% 증가한 1,589억 엔
 - 방일객의 소비확대에 맞추어 수출액도 증가 경향에 있어 2017년의 수출액은 약 278억 엔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
- 방일객이 인기에 불을 붙인 것은 과자류만이 아님
 - 파이롯트(Pilot)의 지울 수 있는 볼펜 「후리쿠션(FRIXION)」은 방일객에게 인기가 있어 2018년 상반기 아시아지역에서의 영업이익이 약 9억 엔으로 전년동기비 약 2배에 달했음
 - 후리쿠션은 전량이 일본 국내 생산으로 공장의 가동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
 - 일본필기구공업회에 의하면 필기구의 수출액은 2017년 1,070억 엔으로 2012년에 비하여 30% 증가했음
- 방일소비를 수출확대로 연결한 선행적 사례인 화장품도 위세가 계속되고 있음
 - 2017년 수출액은 전년비 39% 증가한 약 3,715억 엔으로 5년 연속 과거최고를 갱신함
 - 시세이도(資生堂)는 2020년까지 도치키현과 오사카에 신공장을 가동할 예정임

- 고세(cose)도 군마현의 공장에서 증산투자를 추진하고 있음. 종이기저귀의 수출도 2017년에 1,822억 엔으로 2016년보다 20% 증가했음
- Made in Japan을 무기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, 생산증가 등 파급효과도 큼

□ 일본기업들의 투자확대 전환점, 새로운 영역 개척이 과제

- 일본기업들이 수익력을 높이고 있음
 - 2018년 4~6월기 기업의 손익분기점비율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70%를 하회, 이는 매출액이 현재보다 30% 감소해도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함
- 수익력의 상승에 따라 설비투자도 확대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, 문제는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활용력임
-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에 의하면, 매출액에서 점하는 손익분기점 비율(금융·보험업 제외)은 2018년 4~6월기에 69.4%
 -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한때 90%까지 달했던 비율이 처음으로 70%를 하회한 것임
- 일본기업들은 2008~2014년 기간 중 채무의 압축으로 금리부담을 줄이고 인건비도 삭감, 그 후에는 매출액에서 원재료비를 공제한 한계이익에 주력했음
 - 자동차와 부품메이커 등이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하여 이익률을 높였음
-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업들은 전례 없는 수익력을 확보했음
 - 법인기업통계에 의하면 기업의 현금은 2017년도 시점에서 221조 엔, 연간 10조 엔의 속도로 증가
 - 현금이 기업내부에 쌓이는 현상이 선명해졌으며 모처럼 확보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에 신중한 기업들이 많았음

- 그러나 최근 일본기업들이 태도에 변화가 보임
 - 일본은행이 발표한 9월의 단관에 의하면, 2018년도의 설비투자는 대기업 전산업에서 전년도비 13~14%증가할 전망이다. 9월 시점의 비교에서는 1990년대 이후 28년 만에 높은 수준임
 - 물론 기업들이 보유하는 토지 등 유형고정자산은 이미 470조 엔에 달하고 있음
- 일본경제의 부진으로 투자확대의 여지는 한정된 만큼, 유망한 투자처를 찾아내는 것이 승부의 관건임
 - 미즈호종합연구소에 의하면 합리적인 목적의 투자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
 - 자동차용 등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볍고 강한 신소재 셀룰로이즈 나노피버(Cellulose Nanofiber)에 제지회사가 투자하는 등 기존 비즈니스의 연장에 그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는지가 주목되고 있음
- 일본기업들이 성장원으로 또 하나 주력하는 것이 바로 M&A임
 - 법인기업통계에 의하면 기업이 장기 보유하는 주식의 크기가 크게 증가, 2017년도는 316조 엔으로 2년간 70조 엔이나 증가함
 - 최근 다케다약품과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 해외 동업사를 매수하기로 결정, 그러나 모든 기업이 동업사를 매수하는 대형안전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님
 - 다른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과 손을 잡는 등 규모에 구애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임
- 손익분기점 비율로 70%를 하회하는 수익력을 더욱 높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
 - 비축한 현금을 활용하는 힘의 변혁이 다음 수익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임. 

III. KJCF & KJE News

□ 한일재단 · 한일경제협회 사업 및 행사 개최 결과

2018 일본 모노즈쿠리 IoT 연수(제2차)

(국내과정) 2018년 10월 15~16일 / 경기도 시흥시
 (일본과정) 2018년 10월 16~19일 / 나고야 등
 규모 : 중소·중견기업 과장·팀장급 20명
 내용 : 세미나, 우수기업 공장 견학, 팀별 토론 및 과제해결 등



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육성 현장개선 실무교육

일시 : 2018년 10월 22~26일
 장소 : 경기도 시흥시
 (이론강의) 한국금형기술교육원
 (모형라인실습) 제조혁신인재양성센터
 내용 : 현장개선 실무자 교육, 현장개선 진단·지도, 사후관리 지원 등



베트남 한일협력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

일시 : 2018년 10월 23~26일
 장소 : 베트남 하노이
 규모 : 한국기업 8명, 일본기업 14명
 내용 :
 - 베트남에서의 한·일 협력안건 조사 (세미나, 현지시찰)
 - 베트남에서의 한·일 기업 간 교류네트워크 구축 (교류회)



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모집 안내

1) 「한일(규슈)인재매칭상담회」 참가자 모집 안내

- 행사명 : 한일(규슈)인재매칭상담회
- 장 소 :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(GSCO) Exhibition Hall
- 일 시 : 2018년 11월 20일(화)
- 규 모 : 일본기업 10~15개사,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대학생 등 약 100명
- 진 행 : - 사전 매칭 : 일본기업 및 취업희망자간 서류 심사 및 화상 상담
- 일본기업과 취업 희망자간 1:1 대면 면접을 통해 최종 취업대상자 선정

☞ 자세한 내용은 <https://www.runscareer.com/kjcfjobfair> 참조

2) 「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」 참가기업 모집 안내

- 사업명 : [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] 현장개선 실무교육
- 사업목적 : 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
- 생산현장 개선활동의 주체가 될 현장관리자를 육성하는 과정으로, 자사의 현장개선 활동의 리더 역할 수행
- 신청자격
- 뿌리기술 (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의 6대 업종)을 활용하는 기업
- 참가대상 : 현장관리자(조·반장) 및 재직자
- 1사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 (하반기 6회 실시, 20명 / 1회)
- 차수별 분산 신청 협조 요망
(단, 차수별 신청 상황에 따라 희망 신청 차수가 변경 될 수도 있음)
- 일정 및 기간 등

구 분	기 간	규 모	장소 등
7차	11.5(월) ~ 11.9(금)	20명	한국금형기술교육원 (경기도 시흥)
8차	11.12(월) ~ 11.16(금)	20명	
9차	11.19(월) ~ 11.23(금)	별도모집	
10차	11.26(월) ~ 11.30(금)	20명	
11차	12.10(월) ~ 12.14(금)	20명	
12차	12.17(월)~12.21(금)	20명	

- (세부내용) - 형식 : 합숙교육 / 4박 5일
- 구성 : 이론교육(1일) + 모의라인실습(2일) + 기업현장실습(2일)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572 참조

3) 「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 하반기 현장개선 진단·지도」 참가기업 모집 안내

- 사 업 명 : [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] 현장개선 진단·지도
- 사업목적 : 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
 - 국내 제조현장 출신 베테랑 기술자로서 한일재단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과정을 이수한 현장개선 전문가들이 뿌리기업의 제조라인을 방문하여 독자적인 현장개선 진단매뉴얼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, 지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, 코스트다운, 물류개선 등 실질적 효과도출
- 신청자격 : 뿌리기술 (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조, 금형, 소성 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의 6대 업종)을 활용하는 기업
- 기간 및 모집규모 : 25사(하반기, 수시모집)
 - 진단·지도 : 11월 ~ 12월 중순 / 1사당 10일(진단: 2일, 지도:8일)
 - 사후관리(현장자문 2회) : 12월~1월초
- 구성 및 내용 : 현장진단(2일) + 현장지도(8일) + 사후관리(2회)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574 참조

IV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- 『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7) 하루나베버리지』 2018-10-11
- 『IMD「세계경쟁력연감」으로 본 일본의 경쟁력』 2018-10-09
- 『도면을 그리지 않는다, 교토제작소』 2018-10-04
- 『데이터로 무장, 월러익스프레스재팬』 2018-10-02
- 『최대보다 최고, 야스다공업』 2018-09-27
- 『일본형 경제시스템의 재조명』 2018-09-25

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- 『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회보고서』 공업소유권정보·연수관, ‘18.10.17
<http://www.inpit.go.jp/content/100865265.pdf>
- 『대외직접투자 국내 기업레벨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』 경제산업연구소, ‘18.10.17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8e069.pdf>
- 『에너지혁신을 위한 M1기반구축』 산업경쟁력간담회, ‘18.10.18
<http://www.cocn.jp/thema105-M.pdf>
- 『일본에서의 거점설립방법 : 모델케이스』 JETRO, ‘18.10.13
https://www.jetro.go.jp/invest/setting_up/modelcase.html
- 『일본 중요기술의 산업경쟁력 조사에 필요한 기초정보조사』 경제산업성, ‘18.10.5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431.pdf
- 『안전보장상 중요한 기술에 관한 생산기반 등 실태조사』 경제산업성, ‘18.10.15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430.pdf
- 『일본기업의 강점을 살린 글로벌마케팅』 요시다히데오 기념사업재단, ‘18.8.27
http://www.yhmf.jp/pdf/activity/adstudies/vol_65_01_04.pdf
- 『유저 이노베이션을 전제로 한 기술개발』 요시다히데오 기념사업재단, ‘18.9.27
http://www.yhmf.jp/pdf/activity/adstudies/vol_65_01_05.pdf

V. 한일경제지표

1) 2018년 9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8월			2018.9월			2018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2,421	14.9	-4.7	2,458	-2.3	1.5	22,630	13.2
1	광물성연료	427	115.5	24.9	533	90.6	24.8	3,636	72.6
2	철강제품	312	-4.9	-12.6	311	-11.3	-0.3	3,042	3.0
3	석유화학제품	201	65.5	-2.9	174	14.3	-13.4	1,691	37.7
4	전자부품	139	5.9	-12.0	157	6.4	12.9	1,387	10.1
5	정밀화학제품	159	14.2	-13.6	156	2.4	-1.9	1,491	27.0
6	수송기계	95	-25.5	-20.2	115	-21.6	21.1	1,047	13.0
7	산업용전자제품	113	-13.2	-20.4	94	-35.3	-16.8	1,108	-1.1
8	농산물	95	9.7	4.4	81	-19.5	-14.8	826	4.9
9	기계요소공구· 금형	86	-2.0	-4.4	80	-30.5	-7.0	778	-8.1
10	산업기계	80	34.5	-1.2	78	0.2	-2.5	684	14.2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) 2018년 9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8월			2018.9월			2018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4,233	-6.7	-7.6	4,180	-15.1	-1.3	41,031	0.0
1	전자부품	545	-0.3	3.2	542	-11.6	-0.6	4,790	-0.5
2	철강제품	547	8.0	5.0	497	-11.8	-9.1	5,073	11.4
3	정밀기계	398	-36.1	-16.4	481	-15.9	20.9	5,518	-8.8
4	정밀화학제품	400	-4.8	-4.3	379	-5.7	-5.2	3,557	13.4
5	석유화학제품	340	5.1	7.3	354	-11.9	4.1	2,987	-11.4
6	산업용전자제품	241	-2.2	-20.0	247	-15.5	2.5	2,443	8.6
7	수송기계	177	-21.7	-35.1	209	-12.0	18.1	1,998	0.1
8	기초산업기계	205	-14.4	-20.8	195	-29.7	-4.9	2,096	-12.7
9	플라스틱제품	189	-7.8	1.6	172	-26.8	-9.0	1,655	-6.7
10	산업기계	165	-10.4	-20.7	168	-11.2	1.8	1,637	-2.0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7	2018					
			2/4	3/4	6월	7월	8월	9월
GDP증가율(실질,연율,%)		1.7	3.0p)	-	-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	-	-	-	116.9	116.1	117.5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	4.5	1.3	-	-1.8	-0.2	0.2	-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	-0.3	-1.4	-	-1.2	0.1	2.8	-
기계수주액증가율(전기비,%)		-1.1	2.2	-	-8.8	11.0	6.8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-0.1	-	0.0	0.3	0.3	0
	전년비	0.5	0.7	-	0.8	0.8	0.9	1.0
실업률(%)		2.8	2.4	-	2.4	2.5	2.4	-
수출액(조엔)		78.3	20.2	20.1	7.1	6.7	6.7	6.7
수입액(조엔)		75.4	19.4	20.7	6.3	7.0	7.1	6.6
무역수지(조엔)		2.9	0.8	-0.6	0.7	-0.2	-0.4	0.1
경상수지(조엔)		22.0	4.9	-	1.2	2.0	1.8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55.3	14.6	-	5.6	4.4	3.3	-
환율	달러	112.1	109.1	111.5	110.3	111.4	111.1	111.9
	원화(100엔)	1,009	989	1,007	993	1,008	1,010	1,003
금리(10년물,%)		0.041	0.089	0.098	0.038	0.050	0.101	0.115
주가(닛케이,엔)		20,209	22,341	22,654	22,563	22,309	22,494	23,159

주: p)는 개정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4) 2018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엔,%)

순위	품목	2018.8월			2018.9월			2018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9,369	5.3	-5.7	10,052	-4.7	7.3	89,580	4.9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687	4.2	0.6	3,518	-1.7	-4.6	30,636	4.2
3	자동차부품	3,179	3.8	-5.4	3,497	3.3	10.0	29,629	3.6
4	철강	3,012	13.4	5.5	2,655	0.6	-11.9	25,563	5.6
5	원동기	2,383	16.8	-0.9	2,538	3.9	6.5	21,713	7.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5) 2018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8월			2018.9월			2018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3,661	12.1	0.8	12,626	-1.7	-7.6	116,393	9.3
2	미국	12,459	5.3	-0.4	12,944	-0.2	3.9	112,132	1.5
3	ASEAN	10,369	4.7	-4.0	10,633	4.3	2.5	93,314	7.8
4	EU	7,192	7.1	-6.2	7,351	-4.1	2.2	68,329	6.8
5	한국	4,664	-3.1	-0.5	4,790	-4.6	2.7	43,365	-1.9
6	대만	3,980	11.4	0.7	3,976	0.8	-0.1	34,772	4.1

자료 : 일본 재무성

6) 2018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8.8월			2018.9월			2018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원유	8,975	59.6	17.6	7,227	37.9	-19.5	63,962	23.7
2	액화천연가스	4,446	28.6	15.4	3,859	42.6	-13.2	34,290	15.7
3	의류·동부속품	3,366	5.1	24.3	3,383	5.5	0.5	24,186	5.0
4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289	-4.0	-9.3	2,339	-7.6	2.2	20,563	-0.1
5	석탄	2,706	35.3	16.9	2,335	24.5	-13.7	20,413	-32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7) 2018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8월			2018.9월			2018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5,471	5.9	-1.3	16,329	4.2	-11.9	138,125	6.1
2	ASEAN	10,742	11.9	4.2	9,269	0.1	-13.8	90,777	7.0
3	EU	8,066	6.5	-9.3	7,559	0.7	-6.3	71,263	11.4
4	미국	7,901	21.5	5.6	7,042	3.1	-10.9	65,168	7.8
5	호주	4,927	24.2	14.2	4,298	30.5	-12.8	37,178	14.6
7	한국	2,677	6.5	-11.2	2,754	8.8	2.9	25,956	12.7

자료 : 일본 재무성